“총무원장 직선제는 종단 변화의 시작”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 추진본부 좌담회

8월 5일, 불교환경연대 교육장서
직선제 필요성·실행 방안 등 공유
“투명 선거로 종도 참여 확대해야”
종단 내 지속적 공감대 형성 방침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내년 9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직선제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8월 5일 서울 불교환경연대 교육장에서 ‘조계종 승가공동체 회복의 첫걸음, 총무원장 직선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1994년 종단개혁 이후 약 30년간 총무원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유지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짚고 직선제의 필요성과 제도화 절차, 실질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열린 토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좌담회는 전 조계종 원로회의 사무처장 광전 스님이 사회를 맡았으며 성불원 주지 현각 스님, 상적선원 선원장 해관 스님, 법장사 회주 퇴휴 스님, 마음정원 대표 선엽 스님,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 정성운 신대승네트워크 대표가 참석해 총 5개 의제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총무원장 선출제도는 중앙종회의원 81명과 전국 24개 교구본사에서 선출한 240명 등 총 321명의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방식이다. 그러나 추진본부는 이 같은 간선제 구조가 파벌정치와 폐쇄성 등 구조적 병폐를 키워 왔다며 직선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6년 중앙종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스님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직선제 찬성 비율이 80.5%에 달했고, 이와 관련한 논의는 그간 종단 안팎에서 몇 차례 진행된 바 있다.

추진본부는 직선제 시행 과정에서 현실적 제약과 운영상 어려움도 분명 존재하지만 보다 많은 종도 참여를 이끌어 내고, 승가 본연의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퇴휴 스님은 “그간 간선제로 운영되면서 매관매직과 야합, 담합 등의 병폐가 만연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 추진본부는 8월 5일 서울 불교환경연대 교육장에서 ‘조계종 승가공동체 회복의 첫걸음, 총무원장 직선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종헌종법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종단 내 기구들도 권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지금의 간선제는 결국 ‘그들만의 리그’로 귀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종도와 종단이 화합하고, 평등한 승가공동체 구성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종도가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 첫걸음이 바로 직선제”라고 강조했다.

현각 스님은 “직선제 도입에는 참정권 범위를 어디까지 줄 것인지 등 현실적 고민도 있지만, 승가 본래의 갈마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초복지(與初復之)’처럼 뜻이 달라도 끝까지 설득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참여하지 않는 문화는 곧 책임의식 저하와 종단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진다. 산중에 있든 중앙에 있든, 승가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진본부는 제도의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 자격을 비구는 중덕 이상, 비구니는 정덕 이상으로 설정했다. 중덕·정덕 법계는 종법상 상좌를 둘 수 있고, 말사 주지 자격 및 교구 산중총회 구성 자격이 주어지는 등 종단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책임성을 부여받은 품계다. 추진본부는 “경륜과 덕망, 수행력을 고루 갖춘 이들이 종단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공정한 선거관리도 직선제 실현의 핵심 요소다. 추진본부는 시대적 환경과 기술 반전을 고려해 현실적인 제도 설계와 함께 부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감시체계가 병행된다면 충분히 투명한 선거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종단 내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실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퇴휴 스님은 “직선제가 그나마 대중의 공의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다. 만일 지금의 선거제도가 대중의 뜻과 다르게 간다면 다시 대중의 힘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각 스님은 “진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성공할 수 없다. 지난하더라도 종도들을 설득하고 대화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된다”고 했고, 해관 스님은 “2025년엔 새로운 종단 개혁이 필요하다. 종단 내 대덕 스님들을 직접 찾아가 취지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선엽 스님은 “강원 과정을 마친 스님이 종헌·종법 교육을 받지 않는 현실은 직선제 논의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종도 스스로 계몽하고 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박병기 교수는 “종단 전체가 긍정적인 선거제도 전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등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고 했으며, 정성운 대표는 “관행을 내려놓고 공개적인 제안을 이어가야 한다. 중앙종회의원, 원로회의,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광전 스님도 “이미 화엄사·선운사·월정사 등에서는 선거 잡음 없이 교구 재적승을 위한 제도가 잘 작동하고 있다. 현실 가능한 모델은 존재한다”며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겠지만 우리 사회도 수십 년에 걸쳐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종단도 완성형이 아닌 진행형이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또 누군가가 같은 목소리를 이어간다면 머지않아 변화는 현실이 될 것”이라며 희망을 전했다.

조계종 종책모임 정법회 출범…“공익 위한 종회 만들 것”

8월 4일, 기자간담회 개최
14명 동참…회장 탄원 스님
“총무원장 스님도 격려 전해”



“사부대중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중앙종회, 종헌종법에 기초한 공정한 중회 운영, 특정 계파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종단 전체의 공익을 추구하는 중앙종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정법회 발족선언문 중에서

조계종 중앙종회에 새 종책모임 ‘정법회’가 공식 출범했다. 정법회는 8월 4일 서울 조계사 베이커리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출범 배경과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밝혔다.〈사진〉

정법회는 중앙종회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통과 공감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 종회의원들이, 현실을 개선하고 협의와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결성한 종책연구모임이다. 회장은 탄원 스님, 종책위원장은 대진 스님, 간사는 설도 스님이 맡았으며 종봉·종원·원각·도림·향문·원경·혜산·연규·원각·우경·오심·천산 스님 등 총 14명의 중앙종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14명 중 하안거 결제 중인 오심 스님과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천산 스님을 제외하고 12명이 참석했다.

정법회 회장 탄원 스님은 ‘사부대중과 함께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제하의 발족선언문을 통해 “조계종 중앙종회는 종단 입법기구이자 대의기구로 종단 미래를 설계하고 종도들의 뜻을 대변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며 “중앙종회가 바로 설 때 종단이 바로 서고, 종단이 바로 설 때 한국불교의 미래 또한 건강하게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직 종도들의 뜻을 받들고 종헌종법이라는 원칙 위에 서겠다”며 “우리는 종헌종법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종단 운영을 통해 한국불교의 새로운 희망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법회는 출범에 앞서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각각 예방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도 가졌다. 이날 오전 진행된 진우 스님과의 만남에 대해 종책위원장 대진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께서는 따뜻한 격려와 함께 조계종이 가진 다양성을 건전하게 품어내고, 중앙종회가 소통을 통해 발전하길 바란다는 덕담을 해주셨다”고 전했다.

정법회는 종봉·종원·원각 스님을 종책연구위원으로 선임해 앞으로 종책 연구를 심도 있게 이끌 방침이다. 정법회는 “앞으로 폭넓은 종책 질의와 적극적인 의사 개진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며 “뜻을 함께하는 의원스님들과 지속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협력 가능성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위덕대 제10대 총장 보성 정사 선임

회당학원 7월 29일 이사회서
총장 임기 9월1일부터 4년간



진각종립 위덕대 제10대 총장으로 위덕대 전법원장 보성 정사〈사진〉가 선임됐다.

학교법인 회당학원(이사장 상명 정사)은 “7월 29일 대구 심인고 회의실에서 제526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보성 정사를 위덕대 제10대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9월 1일부터 4년이다.

보성 정사는 1985년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11년 5월 미국 더 웨스트 대학(University of the West)에서 ‘근대한국불교 개혁운동-회당의 종교사상과 진각종의 종파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대한불교진각종과 회당의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논문으로는 ‘진각종의 창종정신과 인간중심 실천불교운동, 미국 불교현황을 통한 진각밀교의 미래방향성 고찰’, ‘동아시아 밀교의식연구’, ‘불교적 교육과 인간의 심성계발’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불교와 사회〉, 〈회당평전〉, 〈진각밀교 교리와 신행연구 下〉 등이 있다.

신중일 기자

다목적 원톱 시스템 이란?

다목적 염불법당시스템은 전기 연결없이 간단하게 들고 다니며 사용함으로 법당 50평 사용 및 산신각, 소각장, 야단법석, 방생용, USB사용과 염불소리 연출, 설법, 성우소리 연출, 편집, 녹음기능 및 전기연결로는 법당서 계속사용, 전기없이 야외에서는 9시간 사용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무선 2 / 유선 2 /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색소폰 무선전용마이크)
실내 50평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98만원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각종 방송시설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